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산학협력단
	김용근 부장(880-7892), 윤지영 담당(880-2028)

배포일: 2023. 6. 16 (금)

서울대, 보스턴에서 열린 'BIO USA 2023'에서 SNU관 운영

대학 보유 유망기술과 교원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선보여

□ 서울대학교는 산학협력단(단장 김재영) 주관으로 지난 6월 5일(월)부터 8일(목)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산업 컨벤션 행사인 BIO-International ('BIO USA') 2023에 대학 보유 바이오 유망기술과 교원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.

□ 바이오 투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바이오 기술 기반 서울대 교원창업 기업들의 사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서울대는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미국 보스턴 컨벤션센터에 약 56㎡(600ft²) 규모의 'SNU 전시관' 을 오픈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진행하였다. 국내 대학 중 BIO USA에 학교 이름을 내건 부스를 마련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.

□ 이번 전시관 참여기업은 ▲인공지능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 개발 기업인 갤럭시(대표 석차옥) ▲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및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기업인 나이백(대표 정종평) ▲고형암 치료제 등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기업인 셀비온(대표 김권) ▲액체 생검 암진단 기술 개발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(대표 김태유, 문성태) ▲면역항암제와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피비이뮤테라퓨틱스(대표 박정규) ▲펩타이드 기반 상아질 및 치주 질환 치료제 개발기업인 하이센스바이오(대표 박주철) 등 총 6개 기업이다.

□ 최근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나온 셀비온은 다국적 제약사(빅파마) 상위 10개 업체 중 8곳과 미팅했고, 특히 C 레벨(CTO·CSO)과 미팅 후 비밀유지 계약을 진행 중이다. 펩타이드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은 나이벡은 미팅한 업체 3곳과 비밀유지 계약과 물질이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, 후속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. 또한 피비이문테라퓨틱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대형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업체와 파트너링을 진행하였고, 이중 일부 업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투자유치 및 라이선싱 아웃 등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 갤럭스는 대형 제약사 등 다양한 업체들의 사업 개발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, 후속 미팅을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하이센스바이오는 이번 행사 참가 기간 중 기존부터 논의를 해왔던 Merck Animal Health 등 다수의 업체들과 지속적인 파트너링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공동연구 모델링으로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. 아이엠비디엑스는 대형 의료기기유통업체, 제약사 및 미국 CLIA랩 등 여러 업체와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글로벌 대형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장된 성능, 대량의 임상검증결과 등을 통해 첫 미팅에서 많은 신뢰도를 가져다주게 되었으며 후속 미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별도로 서울대는 글로벌 특허를 확보한 대학 보유 기술 8건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진행하였으며,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(NASH) 치료제와 고형암 치료에 효과적인 CAR-M1 Macrophage 기술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후속 협의를 약속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.

□ 이번 전시관 참가를 총괄한 김재영 산학협력단장은 “서울대학교의 우수한 바이오 기술과 창업기업의 성과를 해외에 소개하여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, 전세계에 서울대학교의 우수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” 라고 전하였다.